

# 소설과 말기 암환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죽음의 의미\*

전 해 원\*\* · 김 분 한\*\*\*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매 순간마다 존재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Heidegger, 1972). 그러나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도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렇듯 죽음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이기백, 1997). Kastenbaum(1986)은 죽음을 생명체의 속성인 생명현상과 생명과정이 정지된 비가역적 상태로 보았으며 Kubler-Ross(1975)는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현상이며 인생은 죽음의 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물학적 운명의 단순한 실현이 아니며 그것은 삶에 대한 인식조건으로서 인간 삶에 내재한다.

간호는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의 각 단계에 걸쳐 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다(이경순, 2000). 따라서 간호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를 수시로 접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물론 자신의 죽음의 의

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죽음의 준비와 현존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죽음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죽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종교와 철학과 연관지어 있으며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더라면 종교가 무의미하거나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종교와 죽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삶과 죽음을 순환성으로 보고 끝없는 윤회의 연속으로 보기도 하고 부활성 또는 재생성으로 보기도 한다(김석수, 2001). 죽음의 철학적 견해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불가지론적 입장과, 삶의 종말로서 다가올 나의 죽음이 나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존주의적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동호, 1989).

죽음은 누구나 겪을 일이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건이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막막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죽음은 제 3자의 죽음일 뿐이다(이은봉, 2000). 또한 추상적이므로 나와는 관련이 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이며 남의 죽음에 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으나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즉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현상에 대한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김열규 외, 2001).

이러한 죽음의 한계와 어두움 때문에 죽음이 삶의 중요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성(sex)의 문제처럼 그동안 노출을 회피해왔다(임원세, 1995).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 라디오, TV, 소설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죽음을 접하고 있다(권혜진, 1980). 그 예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살인사건,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드라마에서의 스토리의 전개나 결말을 내기 위한 죽음, 천재 지면에 의한 죽음, 신체 질병 등에 의한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대중매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현실을 정의하고 제시하는 지배적인 근원이 되며 대중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획득된 것이 대부분이다(강상현, 채백, 1993).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인 TV 드라마, 소설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는 극적 효과를 위하여 암으로 인한 죽음을 스토리의 극단적인 전환에 자주 이용한다. 이런 것이 대중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줌으로써 죽음의 부정적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설 속에 나타난 죽음은 독자들의 의식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소설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작품 자체의 독자적 구조 속에서 일차적 의미를 발현하고 그 다음은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소설은 인생의 해석이요 소설의 주제는 곧 인생이라고 한 Hudson의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소설은 작가의 의식 내지는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임원세, 1995), 적어도 작품을 접한 독자들이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의 문화가 재형성 될 필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죽음의 의미를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발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죽음의 현실이 인생의 패배, 갑작스런 절망과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은 진정한 죽음의 의미가 될 수 없다. 또한 죽음을 인생의 끝이고 모든 것을 잃은 형태로 인식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종 환자나 가족, 또는 의료인들이 죽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한 자세로 자신의 질병을 수용하여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소외숙, 조결자, 1991; 박혜자, 1989, Pincus, 1979) 소설과 말기 암환자의 면담을 통해 죽음의 의미와 관념, 의식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간호사, 간호학생, 의료인, 호스피스 요원 등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Gloub & Reznikoff, 1971; Lester, Getty & Kneisl, 1974; 권혜진, 1980; 서혜경, 1990; 김주희, 전정자, 김분한, 1992; 김혜란, 1995; 김분한, 전미영, 강화정, 1997; 강은실, 송희완, 서영애, 1997)와 Q 방법론을 이용한 죽음 인식 유형 연구(박미정, 1991; 박창승, 1995; 한문숙, 1998)등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암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과정, 간호, 영성, 존엄성에 관한 질적 연구(Rittman et al, 1997; Hermann, 2001; Dendaas, 2002; Chochinov et al, 2002; 최공옥, 1991; 원중순, 1994; 이옥자, 1996; 김분한, 탁영란, 전미영, 1996)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 암 환자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나 경험을 연구한 예는 소수에 불과하며 죽음과 관련된 소설과 말기 암환자의 죽음을 비교 분석한 예는 없었다.

한국인의 죽음의 의미를 소설 속에서 그리고 말기 암환자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을 살아 있는 인간 세계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대상자의 독특한 경험세계로서 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와 더불어 이해되어야 하므로 인간현상의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 삶의 세계를 일상적 상황의 전체적 해석을 통해 직접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죽음의 현상을 한국 소설 속에 나타난 죽음과 말기 암환자 관찰과 면담을 통해 본 죽음의 실재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죽음의 의미를 비교하여 이를 임종환자 간호증거에 적용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죽음의 두 가지 측면인 한국 소설과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의 죽음의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이는 임종 환자가 죽음을 삶에 있어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영적 간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또한 의료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서 임종환자를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 근 현대 소설에 나타나 있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말기 암환자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 3) 한국 근 현대 소설과 말기 암환자의 죽음의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가?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참여자는 호스피스 사업 시 등록된 환자로써 환자의 종교적 성향이 일정 종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종교관이 제시되지 않았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말기 암환자의 참여 관찰과 면담, 수기, 일기를 통해 얻은 자료와 한국 근·현대 소설의 문서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 1) 소설 선정

여러 문학자료 중 소설의 장르를 연구대상으로 택한 것은 소설이 다른 장르보다 대중적 호소력이 컸으며 소설이 사회 속의 인간의 삶을 보다 철저히 서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이 문학 장르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풍요한 장르이며 작가가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한 것과 관찰한 것을 소설이라는 양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김치수, 1979).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근 현대 소설을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이인복(1979)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유금호(1988)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 박태상(1993)의 한국문학과 죽음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소설 중 우리 문학에서 죽음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죽음을 일반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맥락화하는 시점인 1920년대 이후의 소설(한희주, 1997)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죽음의 의미와 정의는 사체, 장례, 죽음, 죽었다 등의 죽음 표현을 갖고 있는 죽음과 죽음 표현이 없는 죽음 모두를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소설을 살펴보면

1920년대 감자, 배따라기(김동인). 할머니의 죽음, 운수 좋은 날(현진건). 물레방아(나도향). 화수분(전영택) 등 6권

1930년대 광화사, 광염소나타, 붉은 산(김동인). 상록수(심훈). 무녀도(김동리). 흙, 사랑(이광수). 까마귀(이태준) 등 8권

1940년대 별, 독짓는 늙은이, 닭제, 소리 그림자(황순원). 삼대, 임종(염상섭) 등 6권

1950년대 불꽃(선우휘). 사연기(손창섭). 비인탄생, 현대의 야(장용학). 유예(오상원). 사반의 십자가(김동리) 등 6권

1960년대 이후 등신불(김동리). 차가운 강(이건영). 아버지(김정현). 가시고기(조창인) 등 4권이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암 진단을 선고받고 본인이 암 진단을 인지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 의료적인 측면에서 회복의 가망이 없는 성인 말기 암환자로 주로 병원에서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을 받은 후에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성남 시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방문을 허락한 환자들로 대상자의 동의 하에 면담을 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글로 옮겼다. 또 비언어적인 표현 등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1주일 간격으로 가정 방문을 하여 면담을 하고 기본 간호를 제공하였다. 직접 인터뷰 한 경우는 4명이었고 인터넷과 주간지에 수기 형식으로 환자 자신이 직접 쓴 글과 일기, 자서전을 포함하여 사례 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소설에서는 내용분석 기법을, 연구 참여자 및 수기, 일기 분석은 현상학 연구방법인 Colaizzi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형태의 자료는 사례 중심

분석으로 여러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 1) 소설 분석

소설을 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 원인, 반응, 과정, 결말 등 무수히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소설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유형만 분류하여도 방대한 양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죽음에 대한 감정, 태도, 죽음을 표현한 대화를 중심으로 임종 환자 간호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주제들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Huberman & Miles(1994)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먼저 자료를 요약하고 주제를 찾고 묶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소설 내의 죽음에 관련된 진술을 분석하였다. 자료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 적고 자료를 개념 범주에 따라 묶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하는 과정에 이인복(1979), 유금호(1988), 한희주(1997), 임원세(1995), 임금복(1996) 등의 국문학 석 박사 학위 논문을 참고로 하여 의미 있는 문장(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하였다. 죽음과 관련된 주제, 패턴을 찾고 그들 간의 관계를 적어보고 요약하는 것으로 분석 자료를 선택하고 압축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를 통해 비교하고 통합하고 재분석하는 방법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서술적 묘사, 일람표,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도표 등으로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결론 도출은 비교, 대조, 패턴, 주제, 비유 등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Denzin & Lincoln, 1998).

### 2) 연구 참여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 내용을 Colaizzi(1978)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주체의 관점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심리적 경험은 관찰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인식 하에 있으므로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그 경험에 접근해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

악하는 것이다.

제 1단계에서는 각 대상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을 모두 읽고 기술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한 내용을 필사해 자세히 반복하여 읽고 그 의미를 탐구하여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제 2단계에서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진술 내용에서 죽음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 구, 문장을 찾고 기록한 다음 다른 대상자에서 비슷한 진술이 나오면 계속 기록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의미 있는 진술에서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진술하고자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갔다. 이는 맥락을 파악하고 종적, 횡적 맥락 내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며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제 4단계는 창의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에 대상자가 서술한 원본을 숙독한 다음 연구자의 언어로 요약하여 중심의미로 도출해 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추상화된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 5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 모음(cluster of themes), 범주(categories)로 분석하여 분류하였고 분석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하였다. 철저히 기술된 내용에서 본질적인 구조 진술을 하는데 이를 통해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소설 분석 결과 및 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죽음을 주제로 한 소설 자료를 선택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통해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주제를 찾고 비슷한 것끼리 덩어리로 묶는 방법으로 소설에서 보여 지는 죽음에 대한 반응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분노, 절망, 두려움, 공포, 거부, 삶에 대한 집착, 소외감 등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긍정적 반응으로는 준비, 정리, 운명, 당연함 등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몇 편의 소설에서는 죽음을 종교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태도도 볼 수 있었다.

### 1)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

#### 죽을병이라는 것을 안 후의 충격

“악성종양입니다. 다시 닐해 갔잖...”

거기까지 밖에 듣지 않았다. 그 무엇인가 머릿통에 부딪혀 강력한 파열음을 내며 부서졌다. 무서운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온 유성이 지구의 표면에 충돌하듯 그렇게. 한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졌다. (가시고기)

전혀 생각지 못한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주인공은 한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죽음을 접한 후의 가장 최초의 반응이 충격으로 나타난다. 치명적 질환의 초기에 나타난다. 원종순(1994)에서 참여자는 죽음 사실을 접하게 되면 죽음의 위협에 대해 심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의 위협에 대해 절망하며 동시에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

#### 소외감

“의사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널 속이려고만 들어요. 독아서선 번히 내가 죽을 걸 이야기하다가도 나보곤 아닌 체를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난 딱 세상 사람처럼 따돌리는 게 저는 슬퍼요. 죽음이 그렇게 익로운 거란 걸 난 죽기 전부터 맛보게 돼 해요.”(까마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함께 하려 들지도 않을 거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뿐이라는 절실한 익로움이었다. 죽음이거나 그 자체보다 오래지 않아 그렇게 영원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

죽음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일이며 혼자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말기 암환자는 혼자 남겨 질 거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불안이 된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주인공은 그 사실을 숨기려는 주위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주인공은 외롭고 자신만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타인들이 자신을 볼 때 이미 자기는 옛날의 자기가 아니요, 가족의 일원도 아니고 친구의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

을 의미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죽음은 결국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념하고 절망한다. “인간은 단지 홀로 죽는다”는 말처럼 죽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개인적 사실이다.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 줄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다. 이 느낌은 소외의식과 상통한다. 소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는 하나의 경험의 양식이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해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행위의 창조자로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와 그 결과를 마치 자기의 주인공으로 보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숭배까지 하게 됨을 뜻한다. 그래서 소외된 인간은 타인과 접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접촉하지 않는다(김훈, 1987).

#### 두려움

문득문득 거울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놀라고 싫어질 정도로 추하게 변해 가는 낮빛이 겁누르다 못해 이제는 숫제 시꺼멓게 썩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암환자인 주인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지 못했던 모습은 환자에게 충격적이고 두려움으로 느껴진다. Deeken(1999)은 긴 고통의 질환은 환자의 신체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은 말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참여자를 이끈다고 하였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잠시 정신을 놓는 순간마다, 꿈처럼 찾아드는 죽음의 악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자넨 몰라..... (아버지)

그러나 딱딱한 세상 가운데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지나치도록 두려웠다. (가시고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려워져만 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였다.

통증이 가라앉는 동안에 정수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덜커 떨려드는 두려움에 더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

소설 아버지와 가시고기에서 작가는 암환자가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찾아오는 두려움과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자신이 죽고 난 후 혼자 세상에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또한 고통을 느끼면 죽음이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두려워한다. 고통과 두려움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한다.

Pattison(1974)은 죽어 가는 과정의 도움이라는 저서

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이가 죽어 가는 과정 중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8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죽음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포를 느낀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친지를 잃어야 한다는 두려움, 자신의 신체를 잃는다는 두려움,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증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두려움, 퇴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한다. 또한 Deeken(1999)은 죽음과 임종의 두려움을 9가지로 설명하였는데 통증을 두려움, 외로움으로 인한 두려움, 추한 모습으로 변해 가는 자신에 대한 즐겁지 않은 경험의 두려움,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앞에 대하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심판 받거나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머 감각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머의 결여와 너무 진지하게 삶에 임하는 것은 인간에게 오히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걱정**

“나는 시원히 갔다라는 너희들은 어쩌간 딸이냐?” 목숨이 무거운 짐이나 되는 듯이 시원스럽게 죽는다는 딸에 덕기도 가슴이 쓰린 것을 깨달았으나 너희들을 어쩌냐는 소리에 모녀는 소리를 죽여 가며 흑흑 느껴 온다. (삼대)

“우선, 아직은 그렇게 신하게 힘들지는 않으니 당분간 더 충군은 해야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은 아이들라 그 사장이야.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남겨줄 건 없고 그 사장이 영원히 그렇게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으 테니...” (아버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남은 가족을 걱정한다. <삼대>에서는 자신의 죽음은 수용하지만 남은 식구의 앞날을 걱정하며 <아버지>에서는 아직 죽음을 느낄 만큼 고통이 심하지 않아서 일상의 일을 계속하며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을 보여 준다.

**공포**

그러나 소년은 곧장 무엇에 짹짹 놀라고 조그만 두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달달 떠곤 하였다. (달제)

“지금 저한테 무서운 짐승이예요. 무슨 음모를 가지고 복면하고 내 뒤를 쫓아다니는 무슨 음흉한 사내같이 소름 끼쳐요.” (까마귀)

주인공은 죽음을 음흉한 사내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에게 검은 그림자를 덤석 씹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 주인공은 불치의 병으로 인해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였으나 점점 죽음은 자기에게 모든 것의 종말이고 공포와 고독을 느끼게 한다. 소년이 죽음 앞에서 떠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억울함**

“이년! 너도 같이 죽자. 나랑 함께 죽자! 딸야! 둥이 함께 죽어야 한다. 그렇다면 난 언제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 그대 같이 살다 나랑 혼자 죽으라 딸야? 알 된다. 안돼.” (사연기)

주인공은 같이 살다 자신만 죽는다는 것을 억울해 한다. 아내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다른 남자와 잘 살 것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죽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같이 죽는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며 아내를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운명에 대해 반항한다. 오히려 살려는 의지가 있다.

**거부**

내가 아무리 늙구 병들었기로서니 거방징이야 할 죽어니? (독 짓는 늙은이)

송 영감이 저도 모르게 애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 영감은 또 속으로는 자기는 죽어 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독 짓는 늙은이)

책장을 넘기는 손과 그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려는 눈빛은 자꾸만 사십을 거부한 채 없는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아버지)

암 선고를 받은 후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확인해보려 한다. 죽을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찾아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독 짓는 늙은이>에서는 자신이 늙고 병들어도 아직 먹고 살 힘이 남아 있다고 우긴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되새긴다. 소설에서도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망**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온통 머릿속이

영광이 되어 버린 듯했다. (아버지)

친구에게 질병의 진행 정도를 통보 받으면서 주인공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보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정도임을 알고 희망 없다고 생각한다. 암이라는 질병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곧 죽음과 결부시키려한다.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소설을 죽음과 관련된 중심의미를 살펴본 결과 죽음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은 주로 삶과 관련되어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와 죽음 자체에 대한 감정에 관련된 것이었다. 삶에 대한 집착, 걱정은 생과 관련된 것이고 충격, 공포, 거부, 두려움, 소외감, 외로움, 절망 등은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 2) 수용

### 운명

무슨 병이든 낫 때 되면 낫고야 마는 것이다. 저절로 낫지 않는 병이냐면 아무리 돈을 써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사냥이 낫 누구나 자기의 명수를 타고나거늘 어찌 인적으로 생사를 좌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연기)

두고 가는 어선것들이 가슴에 걸리오나 역시 그득에 게도 약속된 운명이 있어 결국은 저 갯길 들르 가게 될 죽은 뉘사옵니다. (사연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기는 일반. (목례방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적이며 타고난 것이므로 맘대로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기는 불확실하다. 죽음을 당연시하면서 그 이면에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로 볼 수 있다. 적극적 수용의 자세라 볼 수는 없지만 죽음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타고난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김분한(1993)은 암 환자의 원인지각 유형 중에 운명 수용형이 있는데 이는 복, 재수 등에 원인지각을 하고 초자연적인 힘과 가시적인 내 탓에 원인지각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유형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 현실적 세계관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만 인간이다. 살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앞파우 오메가다. (현대의 야)

인간은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죽음은 인간

에게 끝이므로 삶에 충실해야 한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죽음이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삶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자는 신보다는 인간 존재를 중시하고 현실주의자였기에 유교는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의 소설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막연한 희망

“전 병을 퍽 행복스럽다 했어요. 처음엔 ……”

“ ……”

“모두 낫 위해 주고 친구들이 꽃을 가지고 찾아와 주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보다 여간 희망이 많지 않아요. 이젠 병이 나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편지를 쓰 겠다. 누구한테 전에 잘못된 걸 사려하리나. …… 참 별별 희망이 다 끊어놓았어요. 병든 걸 참 감사했어요. 그 땀 ……”(까마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병으로 인해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오히려 행복해하고 불치의 병으로 인한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 충격보다 주위의 관심과 사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불치의 병이라도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현실에 지극히 만족한다. 아직은 저 쪽에 있는 죽음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사랑 받는 대상이 된 것을 기뻐한다.

### 희망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거창 짙을 할 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특업없이만 자기가 병 딱 나아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입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장만 구워 내면 거기서 겨웁 양식과 내년에 할 뉘천까지도 나뉘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다시 마음이 조금해 지는 것이었다. (독 짓는 늙은 이)

송 영감은 자신의 병이 낫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과 독을 잘 구워내면 살 방도가 생긴다는 희망으로 독을 짓는다. 죽음을 접하고 여러 가지로 감정이 나타나지만 항상 지속되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은 희망이다. 끝까지 회복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리

다 버리고 싶소. 내 죽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

주요. 꼭 하장을 부탁하오. (아버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장례 문제까지도 스스로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설에서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살펴본 결과 한국 소설에 나타난 죽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인간의 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죽음, 막연한 희망을 가짐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복에의 기대 및 소망을 표현하며 죽어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한 암환자의 임종 경험 연구(최공옥, 1991)에서도 보이고 있다.

운명사상은 천명사상에서 기원하였고 공자는 생사도 하늘이 판결하시고 부귀도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하였고 맹자 역시 미리 결정되었다고 말하였다(이인복, 1979).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삶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한국인의 종교관은 지극히 현세 지향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이규태, 1990) 육체 지향적(배영기, 1992)인 면이기도 한다. 모든 생물은 죽으며 그러므로 사람도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든 것의 끝이지만 그것도 죽음을 수용하는 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 김분한(1993)은 암의 원인지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수용하려는 유형을 운명 수용형이라 하였으며 죽음을 앞둔 참여자에서 타협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박창승(1995)도 암환자 가족 태도의 죽음 유형 연구에서 죽음을 모든 것과의 이별로 보고 죽고 사는 것은 운명으로 여기는 유형을 운명 수용형이라 명명하였는데 한국 소설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 하겠다.

### 3) 승화

#### 죽음을 초월함

생명체학 도구는 다른 것이오. 내 더 이상 무엇을 만들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오.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가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쁘 뿐입니다. (유예)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생명 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원형질이 쉬지 않고 일으키는 화학 변화를 말하며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생물체가 활동을 멈춘 상태이다. 유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동물은 인간이다. 다른 생물은 죽지 않는다. 없어지는 것뿐이다.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의미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에 생물학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삶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이 주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사유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초월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교적 종교관

목숨이 끊어질 수가 없지. 목숨이 끊을 떠나는 게지.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러나 아무리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더라도 나무는 그냥 살아 있지 않소? 그 모양이지. 업보 축 따라서 혹은 하늘에, 혹은 세상에, 혹은 아늑하게 혹은 숭엄게 ……이 우주엔 뭐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없구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법도 없거든. 그것을 묵기학에서 묵진, 불명, 에네르기 불명이라구 아니하우? 생명도 그런 같아서 불명이니까 그것이 한 자리를 떠나면 제가 가기에 상당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 않소? …… 무서운. 괴로운, 이것이 저를 지은 자의 특색이거든. 만일 진실로 한 중생에게도 저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 왜 무서움이겠 게 있겠소? 겁은 왜 있구? 아무 처도 없구 아무 두려움도 없게 되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안전한 기쁨이 있는 거야 …… (중략)당신의 생명은 의사의 판단으로 보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 몸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 당신은 이번 인생을 식로 깨끗하게 보냈으니까 다음 생은 훨씬 높구 아늑다운 사상으로 태어나리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소. (사양)

<그것이 새로운 태어나고, 사상으로도 태어나고 ……>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되씹고 한 결과, 죽어서 새로운 태어나고, 사상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었다. (저승새)

불교는 죽음을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고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 높은 차원의 진실을 체득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한다는 입장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업보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행 위에 생명이 놓일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죽음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교적 윤회 위에서 업보와 인연, 혹은 자연의 일부로 회귀함으로 인해 생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따름이다. 불교에서는 사후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며 삶에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였다.

조명옥(1997)의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후생은 현생의 보상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응어리를 푸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고 하였다.

불교에서 죽음을 윤회와 열반으로 설명한다. 윤회설은 이생과 전생으로 생을 나누며 죽으면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으며 열반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과 삶의 차이가 없는 경지를 말한다(김분한, 김홍규 & 탁영란, 1997). 즉 삶에도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이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노유자 외, 1997).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으로 귀결되고 그의 해결도 마음의 자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승혜 외, 2001).

#### 기독교적 종교관

죽음을 어떻게 면하게 하느냐, 그곳은 땅에 속한 육신을 버리고 영혼으로서 하늘나라에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나고 났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났하기를 자기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땅에 속한 육신과 육신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지 말고 자기를 좇아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뱌의 십자가)

그는 자기가 죽음 바로 한 걸음 앞에 다가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웬 까닭인지 그것이 그다지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사뱌의 십자가)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도 하나님 전이다. (무녀도)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일단 없어지지만 영혼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산다고 믿는다. 이 심판을 통하여 선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되고 악한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화염에 영원히 타게 된다. 기독교적 종교관은 서구의 죽음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신체와 영혼의 이원적인 존

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 역시 생물학적인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참 죽음으로 이원화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한한 인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변형되면서 영원한 생명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김승혜 외, 2001).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죽음은 하나의 위기인 동시에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죽음을 중요하지 않으며, 부활 사상에 중심을 두어 죽음을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주는 희망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도 슬픔의 대상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의 근원이며 희망이다. 결국 인간의 죽음은 무상의 끝이 아닌 성취이며 완성으로의 행위로 이해된다. 한국 소설에서 죽음을 승화시키는 형태는 불교, 기독교의 종교를 통한 승화를 볼 수 있었다. 여러 연구들에서도(김영순, 1991; 이옥자, 1995; 원중순, 1994) 종교와 내세관에 따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의 충격, 죽음을 혼자 맞이해야 하고 자신만의 일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외로움,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두려움,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모습,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감정,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이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운명으로 수용하거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며 죽음을 불교, 기독교 등 종교에 의지하여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2. 연구 참여자 분석 결과 및 논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얻은 면담 내용을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 내고 주제, 범주화하였을 때 보여지는 죽음에 대한 반응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절망, 우울, 고통, 분노, 미련, 걱정, 두려움, 소외감, 고독감, 공포, 부정 등이 나타났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수용, 준비, 그리움, 당연함, 하나님과의 타협을 보였고 종교를 통해 승화시키는 모습과 죽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승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1)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

풍부한 감정을 가졌으면서도 대하를 못하고 무섭게 딱 대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익기 1)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처리해 온 참여자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했다.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 같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 주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삶에 대한 애착과 자식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내 딸은 너무 예뻐서, 나 때문에 힘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아내는 평생 내와 싸운 적이 없어요.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내가 못할 것 하니 빨리 가야 합니다. (참여자 3)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신이 빨리 죽어야 가족들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여긴다. 아내와 딸에게 자신으로 인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착한 아내와 예쁜 딸과 오래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비참하다고 표현하였다.

자식은 최소한 가르치고 집 사주고 결혼은 시켜야 하는데 저는 집도 못 사주고 결혼도 못 시켰어요. (수기 1)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한다.

**절망**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할말도 없고. (참여자 1)

78세의 참여자는 먹는 것과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도 없다고 표현한다. 자신이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며 암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편이었다. 면담 중에도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며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환자의 부인도 어서 죽어야 한다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본인도 더 살 마음이 없다.

제가 거의 의사도 아무 소망이 없고 누구한테도 내 병을 고쳐줄 것이냐는 희망은 전혀 없잖아요. (참여

자 4)

암은 완치되기가 힘들고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을 말한다. 일반인은 암을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희망이 없다고 여긴다. 대상자는 암은 누구도 고치기 힘든 병이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두렵다고 하시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고독하다고 생각한다. 원종순(1994)은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죽음의 위협에 대해 심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의 위협에 대해 절망하며 동시에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

**우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보려고 애쓰지만 하루하루 변해 가는 내 모습을 보기 싫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병원에도 가기 싫다. 모든 것을 혼자서 살기며 체념도 하고 용서도 해 보지만 왜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익기 1)

변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서글픈 생각이 든다. 암환자에서 볼 수 있는 경미하고 만성적인 우울 증상은 안절부절하고 귀찮아하고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며 슬픈 기분을 느끼며 자아 비판적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다(Much J. K.& Barsevick A. M., 1999).

**고통**

이제 숨이 아파 오기 시작한다. 걷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견디기 어렵다. (익기 1)

육체적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말기 암환자 모두가 통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암의 모든 종류와 단계를 고려할 때 약 40~80%의 말기 암환자가 암성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김복자 외, 2000). 신체적 고통은 조속한 죽음을 바라게 하며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한다고 하였다(최공옥, 1991).

**분노**

그저 한탄 나고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차도는 없고. 부인에게 내 하소연하게 되어 면구합니다. 우리 식구는 참 다복하고 재머있게 살았는데.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탄 나요. (참여자 3)

참여자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고통 받고 자신만 병에 걸린 것이 안타깝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참여자는 공연히 화를 낸 것을 금세 사과하면서도 자꾸만 화가 난다고 하면서 미안해했다. Kubler-Ross(1968)는 분노를 죽음의 단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으로 보고 자기가 왜 지금 죽어야 하는가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죽고 싶지 않다는 더 살고 싶다는 절실한 희망을 형태를 바꿔 표출한 것이다.

이제 고맙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 거는 안 무서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더 고통이야. (참여자 1)

대상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4번의 만남 동안 계속해서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으며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며 자신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무서울 것이 없으니 어서 고통이나 없어지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통고 받고 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평소보다 더 레슨하거나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 (수기 1)

죽음 앞에서 더욱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히려 서운해 하고 껄뽀한 생각이 든다. 감정이 병에 걸리기 전과 같지 않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과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단계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여 모든 상황에 불평을 하고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것을 찾아내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존재를 강조하는 하나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다(김분한 외, 1995).

#### 미련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애들도 아직 어니니까 정 나해야 될 일이 있는데(익기 2)

자신은 죽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도 어리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조금 연기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딱상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아내와 자식에게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 (참여자 3)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죽음 앞에서 느끼고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과 해주지 못한 일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한다.

그동안 해오던 일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 겨울

수만 있어도 가서 일을 할텐데... (참여자 3)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죽음을 느끼고 '일을 수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렇게 하면 죽음을 덜 느끼자는 심정이다. 자신의 임무를 끝마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아쉬워한다.

#### 걱정

숲이 딱 딱히면서 땅이 으나오고 그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 집사냥 장래, 애들 문제, 그것이 순간적으로 와서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와서 속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어디 가서 돈 천원, 단돈 만원 벌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 직장 전혀 다닌 적이 없는데 가정 살만큼 했는데 아이들을 어쩌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참여자 4)

참여자는 자신이 없으면 누구도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안타까워한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죽을 수 없으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죽으면 고통도 없고 가족에 대한 부담도 없어 좋은 것 같지만 단지 딸 아이 때문에 더 살았으면 해. (익기 2)

죽음을 수용하는 것 같지만 딸을 생각하며 더 살고 싶어한다. 딸 생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며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죽는다니까 자식이 제일 마음에 걸리지. 마누라하고. 우리 어머니 계시거든. (참여자 4)

죽음을 앞 둔 참여자는 자식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못한 책임감과 모든 것을 말아야 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또한 부모 보다 먼저 가야하는 불효를 저질러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걸려 한다.

#### 두려움

꿈을 꾸는데 시골집이나 하면서 바깥에 웬 젊은 놈이 부르는 거야. 그게 사자야 말야. 마귀가 부르는 거야. (참여자 4).

암 선고를 받은 후 참여자는 자주 죽음에 대한 암시로 꿈을 꾸게 되고 두려워한다. 검은 옷이 라던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등이 마귀나 사자로 생각되고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느끼며 죽음의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죽음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으로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건이며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Kubler-Ross, 1969).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

건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소외감**

친구들 보면 낯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재가 이제 죽지...하는 눈으로 낯 보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4)

자신이 죽을 사람이라서 이제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느끼며 이미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다고 생각한다. 김분한(1996)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초기에 가족들로부터 자신에게 질병을 숨기려 하는데서 느끼는 소외감을 표현한 바 있다.

**고독감**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집사장이 딱 이제 딱 장해 주고 해도 고쳐질 수 있나, 허기야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대안이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얼마나 외롭고, 새벽 천길 땀길 적벽에서 서 있는 거 같애. (참여자 4)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누가 내 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늘 오시니 기다려줍니다. (참여자 3)

그게 참 땡땡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고 참 그러한 일인데. (참여자 4)

죽음은 철저하게 혼자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자를 기다리기도 하며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홀로 경험한다. Deeken(1999)은 말기 환자에게 가장 큰 근원은 혼자 남겨 질 거라는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죽음의 과정을 맞으면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면 두려움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공포**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대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지, 죽은 딱 생각하면서 온갖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참여자 4)

참여자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를 나타냈는데 Michael(1979)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임종과정에 대한 공포, 죽음자체에 대한 공포, 사후 결과에 대한 공포, 그리고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의 복합적 요소로 보고하였다.

**부정**

왜 내가 죽을 거 같이 보여요? 죽어도 하는 수 없지. 근데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참여자 2)

불치의 병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개인은 극단적인 절망을 겪으며 부정하려고 한다. 참여자는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도 화를 내고 기분 나쁨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2) 수용**

**수용**

저는 죽음을 살아났어요. 이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직장도 다시 다니고 싶고. 일자라도 찾으려고 해요. (참여자 4)

참여자는 암으로 인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고통이 좀 줄어든 후에는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하며 좋은 일도 하고 직장도 다시 다니고 싶다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에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며 참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참여자는 완치된 것처럼 희망을 이야기했다.

평소 저는 제 무덤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이운데 죽은 다음에 무덤을 낚기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지상에 모든 것들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수기 1)

항상하면 깨끗하고 낚는 것 없어 좋은데... (참여자 1)

묘를 쓰지 않고 화장을 원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므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대화를 통해 장례 문제나 시신 처리 방법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78세의 참여자는 산소를 미리 사 두었는데 지금 후회하며 오히려 화장을 하기를 원하고 그 돈을 다른 가족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하였다.

**준비**

나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수익도 준비했어요. 재산도 정리했습니다. 왜 안 데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자 3)

참여자는 처음엔 상상도 없던 죽음 앞에서 비참한 심정도 들었으나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여 오히려 빨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산 정리와 수의까지 준비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삶을 정리하자. 죽을 준비를 하자. 식구들라도 마치 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익기 2)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과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 그리움

막상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가족, 친구 아이들에게 제 신경을 닦아 전해 주고 싶었어요. (수기 1)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 당연함

넌보다 한 십 년 일찍 죽는 건데, 언제 죽어도 죽을 거. (참여자 4)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죽음은 시기만이 조금씩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참여자는 담담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빨리 찾아온 죽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 하나님과의 타협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까짓 거 이전 식으로 생각 하려고 해. 그걸 죽는다는 두려움이 덜 해지니까. (참여자 4)

자신의 죽음을 종교에 의지하여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것은 아니다. 참여자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지만 아직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다. 최공욱(1990)의 연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죽음을 수용 하지만 진정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타협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보려고 하는 역동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 후련함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참여자 4)

마음이 후련합니다. 안심이 돼요. (참여자 2)

애들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용서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할래요. 늘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조금 떨려요. 불안해요. 그래도 마음은 후련합니다. (익기 2)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부탁하는 것은 죽음 극복의 한 형태이다. 자기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과이다. 자신이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게 되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후련한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상대를 필요로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미안해한다.

### 3) 승화

#### 해방감

말하자면 살다가 영원히 잠드는 게 바로 인간의 숙명인 것이지요. 죽음이러는 것은 결국 잠드는 것과 다른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살고자하는 집착에서 해방되더군요. (수기 1)

죽음을 잠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그럼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어떤 종교에 의존하여 죽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관에 의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공포나 삶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된다.

#### 종교적 승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하느님 뵈셨을 통해 뵈셨이 살려주기 때문에...때가 안 되어서 안 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 4)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 희망이란 비록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행동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 죽든지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양아서 하신 일이라고. (참여자 5)

나는 늘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양아요. 건넌말씀이다. 자식들도 잘해주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늘 기도하 찬송을 들으면 편안해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질병을 알고 난 후에 종교를 접하기도 하고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종교를 가진 경우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였는데 자신의 질병을 그대로 수용하며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편안해하고 죽음 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희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극복의 의

미로서 종교를 표현하기도 한다. 임종 환자들은 어떤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전통에선 삶은 영원한 것이며 이승을 떠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참여자나 가족이 이런 믿음을 가지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우 간호사나 의료인은 환자를 돌보는데 죽음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느끼며 참여자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희와 이영자(2000), 이정애(1997), Thorson & Powell(1990)의 연구에서도 종교성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았고 종교성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긍정적인 죽음의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창승(1995)은 죽음태도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내세를 인정하거나 종교를 가진 유형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죽음의 의미는 종교와 내세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김순자(1994)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임종 환자에게 영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한 참여자는 병실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종교인들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하였는데 참여자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며 자신이 죽음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깊은 사고를 통해 죽음은 숙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죽음의 공포와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해방되었다고 표현하였다. Deeken(2002)도 말기 참여자의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였더라도 보살피는 사람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죽음에 직면한 당사자의 생사관에 따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죽음을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임종 간호 실무에 임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연구 참여자에서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 긍정적 수용, 종교에 의지하며 죽음을 승화시키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는 자식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과 자신이 암에 걸린 것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비참하다고 표현하였고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암은 완치되기 힘들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절망하

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므로 두렵고 고독하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받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되면 어떤 욕구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루하루 변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우울해하며 서글픈 생각도 든다. 또한 말기 암환자는 통증을 경험하는 예가 많으며 신체적 고통이 죽음을 바라게 하고 희망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참여자는 고통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 쉽게 서운해하고 감정이 예민해진다. 미련을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꾸기도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이기도 한다. 죽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말기 암환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죽음 부정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수용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재산 정리와 죽음 후의 장례와 관련된 일까지 서슴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였다. 참여자는 가족과 떨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참여자는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은 후 후련함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죽음을 인식하고 절대자에게 매달리게 되며 종교에 의지하면서 죽음을 승화시킨다. 참여자들은 호스피스를 원하는 환자였으므로 대부분 종교가 있었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 3. 소설과 연구 참여자에서 나타난 죽음 비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설과 참여자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였다. 소설에서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충격, 외로움, 두려움, 책임감, 공포, 거부, 포기 등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에서의 부정적 정서는 미안함, 책임감, 절망, 우울, 분노, 고통, 삶에 대한 집착, 미련, 걱정, 소외감, 외로움, 두려움, 공포로 나타났다. 소설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충격과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가졌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의 외로움과 남들에게 따돌림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 등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에서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거부, 분노, 초조함, 아쉬움, 허무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암 선고를 받은 후 믿지 못하며 오히려 담담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인식하며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하기도 한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생무상, 무의미함을 느끼면서도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한다. 죽음을 서서히 인정하면서 생을 정리하며 준비한다.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죽음을 초월한 듯하지만 다시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에 괴로워하며, 단계적 죽음이 아닌 복합적 형태로 섞인 감정상태와 반응으로 다양화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설에서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운명, 수용, 본능, 희망, 죽음 준비, 현실적 세계관을 보였고 연구 참여자에서의 긍정적 태도는 수용, 극복, 희망, 준비 등의 자신의 사고를 통한 수용과 종교에 의지하여 타협하는 수용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죽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를 통한 승화로 나타났고 참여자에서는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을 통한 승화와 종교에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종교적 승화로 나타났다. 소설과 말기 암환자에서 살펴본 결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대상자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면을 보여 인간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체계(Ruby L. W., 199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설이나 말기 암환자에서 다양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다.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분노, 외로움, 충격 등의 감정과 삶과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신의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책임감 등을 표현하며 삶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소설이나 대상자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죽음을 운명으로 여기거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용하는 때이다. 또한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고 준비하거나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소설과 실제의 죽음 과정의 차이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참여자에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모습의 수용을 볼 수 있지만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실제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암 진단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니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유발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해석해보도록 만드는데 그런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전통적 가치와 영적 신앙을 추구하도록 한다(Neidjon & Sowers, 2000).

Jenkins와 Paragament(1995)는 대상자가 처음 암 진단을 받거나 재발이 확인되었을 때 종교적 극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런 종교적 극복은 여성이나 흑인 노인 및 사회경제학적으로 하위 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서 더 자주 이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설에서는 불교, 기독교를 통한 승화를 볼 수 있었고 대상자에서는 주로 기독교에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공욱(1991)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 뒤의 생에 대한 신념을 가질 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진정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타협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누군가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고 싶어한다. 그런 후에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여 진정한 수용인 승화를 보였다. 그러므로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변화, 두려움, 불안 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진정한 경청이 간호에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느끼면서 절대자에게 매달리게 되며 종교에 의존하면서 평온함을 느낀다. 결국 임종 환자들은 어떤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소설에서도 종교적 승화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말기 암환자의 임종 과정에 있어서 영적 간호와 지지적 호스피스 간호가 환자가 죽음을 수용하며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필요하며 이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근 현대 소설과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과 사례 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임종 간호를 확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였다.

연구 참여자는 성남 시에 거주하며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집에서 생활하는 말기 암환자 4명과 인터넷과 중간지에 수기와 일기 형식으로 참여자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사례 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한국 근 현대 소설은 이인복(197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죽음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소설을 읽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소설과 참여자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3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설과 연구 참여자를 통해 본 죽음은 부정적 정서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종교에 의지하여 승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설에서의 죽음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과정을 보여주며 부정적 정서에서 삶과 관련된 주제는 삶에 대한 집착, 걱정, 미련, 책임감, 포기이고 죽음과 관련된 주제는 충격, 소외감, 두려움, 공포, 거부였다. 수용과 관련된 주제는 수용, 운명, 현세관, 준비, 정리였고 승화와 관련된 주제는 기독교, 불교를 통한 종교적 승화로 나타났다.
3. 실제 연구 참여자에서의 죽음은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로 나타났으며 삶과 관련된 주제는 미안함, 걱정, 미련, 책임감, 절망이었고 죽음과 관련된 주제는 우울, 외로움, 분노, 공포, 두려움이었다. 수용은 종교적 수용으로 하나님과 타협함으로 죽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준비, 정리, 수용, 희망 등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화와 관련된 주제는 기독교를 통한 종교적 승화와 대화와 사고를 통한

자기 성찰로 인한 승화로 후련함, 숙명이었다.

4. 소설과 실제 말기 암 환자를 비교한 결과 실제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로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과정을 보여주며 수용은 참여자에서만 종교적 수용을 보여준다. 소설에서의 죽음은 정형화되고 단계적이며 Kubler-Ross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지만 참여자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5. 종교를 통한 승화는 소설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통한 승화를 보여주고 참여자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자가 많았으므로 거의 기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서의 죽음은 단계적 죽음이 아닌 복합적 형태로 섞인 감정 상태와 반응으로 다양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은 소설에서와는 다르게 더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존재이므로 죽음을 수용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소설과 연구 참여자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절대자에게 매달리게 되며 종교에 의존하면서 평온함을 느끼며 결국 임종 환자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종교적 극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는 삶을 정리할 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며 그러므로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과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자가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를 하는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대화를 많이 하여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죽음을 승화시키는 것은 대부분 종교를 통해 죽음 뒤의 생에 관한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졌다. 자연



스럽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참여자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숙명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참여자의 죽음에 관한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사정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영적인 간호가 간호실무의 한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4. 연구 참여자에서 죽음은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소설이 자칫 참여자의 간호중재를 하는데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자의 경험에 치중된 간호실무가 요구되고 죽음에 대한 실재는 우리가 분석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범위보다 심오하고 많은 것들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사례 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임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죽음을 앞둔 참여자를 암 환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질병명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죽음관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인의 죽음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호스피스 요원 및 자원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일반인, 참여자, 간호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은숙(2000).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죽음 모티브의 심리적 분석: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일(1988). 죽음에 대한 사회학적 의미. 월간 광장

9, 148

김명희(1991). 지역사회 주민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분한(1992). 암 환자의 원인지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Q방법론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분한, 정태준, 이정섭, 김문실, 김남초, 탁영란, 황애란(1995). 호스피스와 실제. 서울: 수문사.

김분한, 탁영란, 전미영(1996). 호스피스 간호 시 말기 암환자의 임종 현상 연구-독립형 호스피스 센터를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6(3), 668-677.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gi, Cola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9(6), 1208-1220.

김순옥(1992). 임종참여자가 가족이 지각하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1994). 한민족 노인의 죽음정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열규(2001).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궁리출판.

김열규, 김석수, 박선경, 허용호 공저(2001). 한국인의 죽음과 삶. 서울: 철학과 현실사.

김열규, 정병조, 정진홍, 이시형(1989). 죽음의 사색. 서울: (주)서당.

김영순(1988). 말기 암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훈(1999). 죽음의 미학. 서울: 시와 사회.

김정현(2002). 아버지. 서울: 문이당.

김종선(1998). 한국인의 삶과 죽음.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16, 109-138.

김진경(2000). 중년여성 암 환자의 삶을 통한 대체요법 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란(1995). 임종간호경험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훈(1987). 존재의 자각과 탐구. 국어국문학, 23, 117.

노승옥(2001). 간암 환자의 보완·대체 식이요법 치유 과정 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공저(1994).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 대라모도 마쯔노 저/김주희, 임난영, 김분한 공동 편역(2002). 임종과 함께 하는 간호. 서울: 현문사.
- 도날드 폴킵혼 저/김승현, 이경숙, 심미선, 황치선 역(2001).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일신사.
- 박덕규(1999). 이태준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1991). Q-방법론에 의한 임상간호사의 임종간호유형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승(1995). 암환자 가족의 죽음 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상(1993). 한국문학과 죽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배영기(1992).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죽음의 세계. 서울: (주)교문사.
- 서원 B. 누랜드 저/명희진 역(1995).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세종서적.
- 신경림 역(2000). 체현연구(벤 매넨 지음). 서울: 현문사.
- 안미영(1998). 김동인 소설의 죽음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진탁 역(200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Alfons Deeken 저). 서울: 궁리출판.
- 원종순(1994). 죽음을 앞둔 암환자의 돌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금호(198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이광수·김동인·염상섭·현진건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호종(2001). 떠남 혹은 없어짐-죽음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 이경순(2001). 죽음경험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3), 368-375
- 이규호(1999). 대화의 철학. 서울: 시공사.
- 이기백(1998). 실존론적 죽음의 문제. 중원인문논집, 제 17집.
- 이기상(2002). 현상학적 간호연구방법의 재조명. 대한 질적연구간호학회.
- 이영균(1992). 죽음의 정의. 도서출판 고려의학.
- 이옥자(1995). 말기 암환자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봉(2000).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복(1978). 한국여성의 생사관과 순결의식.-한무숙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하여-. 아세아여성연구, 17(-).
- 임금복(1996). 한국 현대소설의 죽음의식 연구-김동리·박상룡·이청준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민(1998).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죽음의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균(1997).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원세(1995).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사회 병리적 상황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호, 이인석, 김광윤(1997). 죽음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경림 역(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제니스 M. 모스, 페기 앤 필드 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두섭 역(1999). 질적 연구 방법론(제니퍼 메이슨 저). 나남출판.
- 조명옥(1997).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17(3), 1-35.
- 조명옥(1997). 한국인의 죽음의식 연구.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7(1), 322-342.
- 조명옥(2002). 문헌 민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죽음 관념. 다학제적접근 질적연구, 3(2), 35-46.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창인(2000). 가시고기. 서울: 밝은 세상.
- 최공옥(1991). 말기 암 환자의 임종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신일(2001).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263-275
- 최영희(1993). 질적 연구. 서울: 수문사.
-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 조명옥(1992). 간호와 한국문화. 서울: 수문사
- 최운식(1992). 옛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최필순(1999). 말기 암환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종교학회(2001).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 한문숙(1998). 암병동 간호사의 죽음인식 유형 분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전숙(1989). 현상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한전숙, 차인석(1992). 현대의 철학1.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희수(1997). 한국 근·현대 소설에서의 죽음의 변화 양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덕구(1994). 195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ashakkori, A. Teddlie, C. 저/염시창 역(2001). 통합 연구방법론. 학지사.
- Andershed, B. Ternstedt, B. M.(1999). Involvement of relatives in care of the dying in different care cultures: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understand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12(1), 45-51.
- Andrew, M. C.(1998). Optimizing the human experience: nursing families of people who die in intensive care.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3, 59-65.
- Beck, C. T.(1997).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6(9),
- Chinn, P. L. & Kramer, M. K.(1999). Theory and nursing.(5th edition) Mosby.
- Chochinov, H. M., Hack, T., McClement, S., Kristjanson, L. & Harlos, M.(2002). Dignity in the terminally ill : a developing empiric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54, 433-443.
- Costello, J.(2001). Nursing older dying patients: finding from an ethnographic study of death and dying in elderly care wards. JAN, 35(1), 59-68.
- Deeken, A.(1999) Psychology of death & dying. 제4회 Hospice 국제학술회의. 5-22.
- Dendaas, N. R.(2002). Prognostication in advanced cancer: Nurses' perceptions of dying process. ONE, 29(3), 493-498.
- Denzin, N. K. & Lincoln, Y. S.(1998).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SAGE Publications.
- Devich, Field & Carlson(1990). Supportive care for the hopelessly ill. Nursing Outlook, 38(3), 140-142.
- Dobratz, M. C.(2002). The pattern of the becoming-self in death and dy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15(2), 137-142.
- Dugan D. O.(1987). Death & dying. Journal of Psychological Nursing, 25(7), 21-30.
- Elise, L. Lev.(1986). The teaching human care for dying patients. Nursing Outlook, 34(5), 241-243.
- Evans N. & Walsh, H.(2002). The organization of death and dying in today's society. Nursing Standard, 25(16), 33-38.
- Hermann, C. P.(2001). Spiritual needs of dying patients: A qualitative study. ONE, 28(1), 67-72.
- Hinton, J.(1974). Talking with people about to die. Brit. Med. J. 6, 24-27.
- Hjorleifsdottir, E. & Carter, D. E.(2000). Communicating with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Nursing Education Today, 20, 643-653.
- Hopkinson, J. B.(2001).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clinical skills in caring for dying people in hospital. Nursing Education Today, 21, 632-639.
- Jenkins, R., & Paragament, K.(1995). Religion and spirituality as resources for coping with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13(1/2), 51-74.
- Kastenbaum, R. J.(1986).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3rd. ed.). Columbus, Bell & Howell Co.
- Krayser-Jones.(2000). A case study of the death of an older woman in a nursing home: are nursing care practices in compliance with ethical guidelin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September, 48-54.
- Kubler-Ross, E.(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Co.
- Lee, O. J. & Pilkington, F. B.(1999). Practice with persons living their dying: A human becoming perspective, Nursing Science Quarterly, 12(4). 324-328

- Lester, D., Getty, C., & Kneisl, C. R.(1974).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nursing faculty toward death. Nursing Research, 23, 50-53.
- Michael Crotty 저/신경림, 공병혜 역(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Michael, A.S.(1979). Dying: facing the facts-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ying. N.Y.: Hemisphere Publishing Copporation, 127.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 Reed, P. G.(1986). Religiousness among terminally ill and healthy adul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35-41.
- Rittman, M., Paige, P., Rivera, J., Sutphin, L.& Godown, I.(1997).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Cancer Nursing, 20(2). 115-119.
- Rose, P.,Beeby, J.&Parker, D.(1995). Academic rigour in the lived experience of researchers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in nursing. JAN, 21, 1123-1129.
- Streubert H. J. & Carpenter D. R.(1999).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Lippincott.
- Taylor, E. J.(2001). Spirituality, culture, and cancer care.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17(3), 197-205.
- Thorson, J. A. & Poweell, F. C.(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Thorson, J. A. & Powell, F. C.(1990). Meaning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4), 379-391.
- Volker, D. L.(2001). Perspectives on assisted dying. ONF, 28(1), 39-49.

## Abstract

### The meaning of death for Korean in view of novel and end stage cancer patient\*

Jeon, Hye Won

Every one experiences death one day, however no one can knows exactly what it is because people can not experience death until it comes,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judge correctly on the phenomenon of the death. On the whole, man experiences indirect death through the mass communications such as TV drama, fiction, magazine etc because those methods can easily access by every one. In addition to this, people usually acquire the negative awareness of death through the dramatic change of story like dying of cancer for dramatic effect by giving scare and fear to the can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spiritual care that enables the facing death patients to accept death as a part of life and divert hope from scare about after death by comparing and analyzing of two aspects of death meaning i.e, Korean fiction and the end stage cancer patients. Additionally, for medical staff to understand the facing death cancer patients by making to aware patients correctly and provide the better quality of care.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28, 2002 to February, 28 2003.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direct data obtained from observation, interviews, note and diary of end stage of cancer patients and written materials acquired from Korean contemporary fict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 end stage cancer patients including 2 lung cancer patients, 1 liver

\*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Boon Han, R.N., Ph.D.

cancer patient and 1 esophagus cancer patient.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types; Huberman & Miles methodology was used for fiction to find and categorize subject, and Colaizzi, one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end stage cancer patients to find the major meaning, subject and categorization.

1. The death investigated in the fiction, was found as a progress of negative emotion, acceptance and sublimation, life related subjects in the negative emotion were tenacity for life, anxiety, lingering attachment, responsibility, abandonment and death related subjects were shock, isolation, fear, scare and rejection. Acceptance related subjects were acceptance, destiny, secularism, preparation and arrangement, and sublimation related subjects were sublimation through Christian and Buddhism.
2. The death showed in the participants was negative emotion, acceptance and sublimation, life related subjects were repentance, anxiety, responsibility and hopelessness, and death related subjects were dejection, solitude, anger, fear and scare. The acceptance was a type of religious acceptance that admitted instantly by reaching an understanding with the God, and death was accepted as a progress of preparation, arrangement, acceptance and hope. Sublimation related subjects were Christian sublimation and relief or destiny incurred from self-reflective sublimation through communications and thoughts.
3. The death in view of fiction and participants were positively accepted both death and negative emotion, and the study disclosed the fact that death was sublimated dependent on religion.
4. The progress of negative emotion, acceptance and sublimation was disclosed more complicated and various in the real end stage cancer patients and acceptance only found in the patients on the form of religious accept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compared with fiction and real end stage cancer patients. The death showed in the fiction was standardized, gradated and similar progress with psychological status of Kubler-Ross. However, death in the participants was showed complex and various feelings simultaneously, and sometimes they accepted death positively.

5. The sublimation through religion was found in Buddhism and Christian in the fiction and mostly Christian in the participants due to a number of Hospice patients.

It was found that negative emotion various types of death was more found in the participants than fic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udy on the response of death in various types.

In the participants death was incurred more systematic and variously, we knew that nursing practice focused on experience of participants is required and reality on death is much profound than we analyzed and presented, lots of situations and reactions should be premised because we can not completely rule out the negligence possibility of care mediation of participants. In caring for the facing death patients, we discovered and confirmed again through this study that the spiritual care should be needed as a mediation method.

Key words : meaning of death, Korean, novel, end stage, cancer